대구주보

연중 제22주일 2017. 9. 3.(가해) 제2068호

2017년 교구장 사목교서 |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http://www.daegujubo.or.kr

T. (053)250-3048~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태 16,24)."

말씀을 통해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구원의 길이고 하느님 사랑의 극적인 표현입니다.

_ 정미연 소화데레사 作

제1독서 예레 20,7-9 **제2독서** 로마 12,1-2 **복 음** 마태 16,21-27.

화 답 송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신앙인의 선택

김종률 스테파노 신부 | 교정사목 담당

지난 주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 인정하셨고,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은 지난 주일 복음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가 해야할 일은 수난과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임을 밝히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스승이 죽어야 한다니 '맙소사! 안됩니다!' 하면서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장 중심에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보다는 하느님의 생각을, 나의 의지보다는 하느님의 의지를, 나에게 좋은 것보다는 하느님께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고 하느님께 자신을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오늘 2독서인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로마 12,2)

오늘날의 세상은 너무 많은 것들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어지럽히는 어둠의 문화들이 '괜찮아, 괜찮아. 누구나 다 그렇게 하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며 빛의 자녀인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을 따르자니 신앙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거부하자니 사회에서 도태되고 소외될까봐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둠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을 그리워하며 애태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 안에서 비로소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은 바로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인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무엇이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는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참된 삶의 길이 아니라 어둠과 죽음의 길로 나를 이끄는구나!" 하며 뿌리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현세적인 기쁨과 쾌락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결국 목숨을 잃게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이 됩시다!

희망의 선교사 3

조정화 율리엣다 수녀 |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미사에 참례하러 가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 발의 총소리에 두 명의 청년이 총을 맞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 땅에 포복하여 겨우 성당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두 눈으로 직접 그 청년이 세상을 떠나 하느님 곁으로 가는 것을 보고는 정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2015년 11월, 교황님의 방문으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가끔 시골 쪽에서는 아직도 서로를 많이 죽이고 있습니다. 완전 몰살되어 마을이 없어졌다는 소식도 들려오지만,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았고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유엔군들이 온통 장악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학교도 정상화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모 신부님의 도움으로 학생들과 학생 의사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학업을 마친 6명이 의사가 되었고 전문의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6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1976년에 생긴 의과대학(오직 방기에 하나뿐)에서 지금까지 470여명의 의사가 나왔지만, 아직 각 과에 전문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심장외과, 흉부외과, 마취과는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겨우 심장내과 수술전문의 한 두 명이 중앙아프리카 전체에 있는 전문의라는 사실, 그리고 전문의 교육은 소아과와 산부인과뿐이고 다른 과들은 전부 외국에 나가서 이수해 와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명뿐인 혈액전문의가 죽고 나니 그 방면의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 투석기, CT, MRI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 조환길 대주교님의 은혜로 4명의 신학생이 대구 대신학원에서 유학 중이고, 4명의 학생들이 대구대교구 사회복지회의 도움과 지도로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교육 중이며, 의사들이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의 모든 신자들, 사제들과 수도자들, 우리 수도회 가족들 모두가 이 선교의 장에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선교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함께하고 머리로 생각만 한 선교의 삶이 입으로, 심장으로, 내 영혼과 온몸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늘 필요한 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라며, 우리는 오늘도 선교의 현장에서 신나게 살아갑니다.

문화의 복음화 _ 나눔과 어울림의 하느님 나라 건설

최근 들어 여러 본당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각종 문화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당 신자들 사이에 결속을 다지고 선교의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교회 곳곳에서는 21세기 문화시대에 적합한 선교사목의 형식으로 "문화의 복음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화 형태의 변화에 따라 복음화의 형식 또한 달라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생활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 정신적 유무형의 구조물이라고 정의되는 문화는 쉽게 말해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듣고, 보고, 즐기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일상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일상을 복음적으로 살면서 하느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문화의 복음화"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만나고, 복음을 삶 자체에 구현하는 신앙의 일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중 하나인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기쁨과 희망)』에서는 "현대인의 생활 조건이 사회적, 문화적 견지에서 급격히 변화되었으므로 인류 역사의 새 시대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54항)고 밝히고 있으며 문화를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에 따라 1975년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사도적 권고 『현대의 복음선교』에서 이미 문화의 복음화를 제시하셨고 이는 교회의 사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문화의 복음화를 지지하셨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세상과 소통하는데 있어서 문화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자 방법입니다. 다양한 문화의 여러 장르를 활용하여 동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 감각과 조화를 이루면서 세상을 향해 기쁜 소식을 알리고 나누는 일이야 말로 복음화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교회문화는 음악과 미술, 건축, 문학 등의 형태를 띠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지금도 교회 내의 다양한 문화단체들이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하느님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에도 음악, 미술, 문학, 스포츠와 같은 예체능 분야에서부터 전례, 건강, 차, 통신 등 각종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같은 믿음과 같은 관심을 통해 문화의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 평신도사도직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대구주보에서 특별히 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 가운데 동호회 단체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구 내에 이러한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교회 밖 일반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는 신자들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가 이러한 문화단체를 가장하여 접근하고 포섭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문화 영성을 통해 나눔과 어울림의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알쏭달쏭 천주교 용어

세례를 받고 성당에 나가면서도 막상 교회 용어에 대해 누군가 물어오면 알긴 아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 하신 적 있으시죠? 또한 용어가 생소하지는 않지만 정확히 그 뜻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는 예전의 용어와 현재의 용어가 바뀌어 헷갈려 하시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이번 주 부터는 "신앙의 재발견" 시리즈 2탄으로 새롭게 개정된 천주교 용어집에 수록된 "천주교 용어"에 대해 연재를 시작합니다. 천주교 신자라면 적어도 우리가 쓰는 용어 정도는 제대로 알아야 신자다운 신자가 아닐까요?

가톨릭 교회 〈라〉 Ecclesia Catholica 〈영〉 Catholic Church

"가톨릭", "천주교"와 병행하여 사용합니다. 가톨릭은 '보편적', '공번된'이라는 뜻의 그리스 말에서 나왔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의 가톨릭 교회를 "보편 교회"라고 하고 각 지역(교구)의 가톨릭 교회를 "지역 교회" 또는 "개별 교회"라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도 로마 전례와는 구분되는 동방 전례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방 가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 정교회, 성공회, 프로테스탄트(개신교) 등은 가톨릭 교회에 속하지 않습니다.

각혼 覺魂 〈라〉 anima animalia, anima sensitiva / 〈영〉 animal soul, sensitive soul

사람이나 동물의 감각 능력을 "각혼"(覺魂)이라고 합니다. 스콜라 철학의 영혼론에 따르면 식물에게는 "생혼"(生魂, anima vegetativa), 동물에게는 "각혼"(覺魂), 인간에게는 "영혼"(靈魂)이 있다고 합니다. 각혼은 생혼의 기능까지 지니고, 영혼은 생혼과 각혼의 기능까지 지니는 것으로 봅니다.

감목 監牧

감목은 '양을 치는 목자'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지목구, 대목구, 교구 등 개별 교회의 최고 책임자를 통칭하였습니다. 한국의 초기 교계 제도 안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교구로 설정되기 전이지만 교구에 준하는 개별 교회들을 이끄는 목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감사 기도 感謝祈禱 〈라〉 prex eucharistica 〈영〉 Eucharistics Prayer

미사통상문(Ordo Missae)의 prex eucharistica는 "감사 기도"라고 합니다. "감사 기도"는 미사 예식의 정점으로, 사제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사송, 거룩하시도다(Sanctus), 성령 청원, 성찬 제정과 축성문, 기념, 봉헌, 전구, 마침 영광송으로 구성됩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79항 참조).

〈발췌_『천주교 용어집』(2017)〉

교구장 동정

8.27(일) _ 고아성당 봉헌식
8.29(화) _ 학교법인 선목학원, 해은학원 신임 교장·교감 임명식

총대리 동정

8.30(수) _ 대구광역시 교육청 여학생 가정형 Wee센터 축복식

교구 및 기관 행사

9. 3(일) _ 주보기자단 월모임 (11시, 교구청 별관 4회합실) /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와 교구 교육청소년국장 회의 (4일까지, 한티피정의집)
9. 4(월) _ 2017년 제1회 'Concert for Mom' (13시 30분, 교구청 교육원 다동 대강당)
9. 6(수) _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의 (19시, 교구청 별관 4회합실)
9. 7(목) _ 38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2주차 교육 (9시 30분, 1대리구 대봉성당)
9. 9(토) _ 2017년 'YHY'캠프 (10일까지,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오늘 ! 어르신들을 위한
'가톨릭 은빛신문' 5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풍성한 노년을 가꾸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제 5 호
"하느님의 축복 속에 아름다운 노년을!"
가톨릭 은빛신문
발행인 : 조환길 대주교
주 간 : 박상용 신부 (노인사목담당)
편 집 : 마정웅
2017년 9월 3일 연중 제22주일
순교성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대구대교구 제2주보 성인 이윤일 요한-
축 시
겨레의 가슴에 구원의 빛 심어
- 성 이윤일 요한을 기리며
박복조 (사비나)

답게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매사에 '나는 주님의 참 제자인지'를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미 사 안 내

경주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9월 4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9월 4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선교회 월례미사	9월 4일(월) 11:00 계산성당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9월 5일(화) 11:30 계산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9월 4일(월) 11:00 죽도성당	경주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9월 6일(수) 19:00 용강성당

대리구 소식

2대리구 성경학교 2학기 개강
개강: 9.7 매주 목 10:00
장소: 2대리구청 1층 강의실
강사: 성바오로딸수도회
비용: 한 학기 6만원(교재비 별도)
신청: 743-7010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기간: 9.8(금)~10(일) 14:00
장소: 부산 부곡동 본원
대상: 선교 수도생활을 원하는 미혼 여성
문의: 루카 수녀, (010)9319-1690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9.9(토) 16:00
장소: 예수회센터 이냐시오카페
주제: 성소식별과 선택
문의: 이인제 수사, (010)2874-9203

바오로딸 테클라 성소 모임
일시: 9.10 매월 둘째주 일 14:00
장소: 동성로 바오로딸서원 2층
대상: 하느님을 찾고 나를 깊이 알고 싶은 미혼 여성
문의: (010)2503-5185

아씨시수녀들과 수도생활 체험 피정
기간: 9.9(토)~10(일) 1박 2일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회비: 2만원
주최: 아씨시의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문의: 전베로니카 수녀, (010)5313-0241

힐데가르트 영성 피정
기간: 9.23(토) 15:00~24(일) 15:00
장소: 베네딕도영성관
회비: 6만원
문의: 313-3425 / (010)7103-3425

향심기도 소개 피정
기간: 9.16(토)~17(일) 1박 2일
장소: 평화계곡피정의집(소울스테이)
대상: 향심기도를 배우고 싶으신 분
문의: (010)5332-7587

제주 면형의집 피정
수도회 수사와 제주성지·평화·역사 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오름트레킹
기간: 9.12~15 / 9.18~20 / 9.23~25
10.13~16 / 10.19~21 / 10.29~31
문의: (02)773-1463 / (064)756-6009

제주 성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기간: 9.19~22 / 9.24~26 / 10.8~10
10.17~20 / 10.25~27 / 11.4~7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교육 | 모집 | 기타

2018 가톨릭상지대 신입생 수시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1차: 9.11(월)~29(금)
문의: 교무입학처, (054)851-3021 / 3023
http://ipsi.csj.ac.kr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9월 정규입학 모집
기간: 단기, 장기
대상: 초5~중3
주최: 그리스도의레지오수도회
문의: (02)2258-8983
http://www.oakinternational.co.kr

제주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발: 매월 1회, 4박 5일 / 63만원
지역: 가고시마, 나가사키, 고토, 북해도
주관: 가고시마교구 / 지도: 송진욱 신부
문의: (010)3005-9028

Neome Skin Clinic 네오미피부과
원장/피부과 전문의 이준호 시메온
소아, 난치 피부질환 클리닉
명품레이저 보유
월성CGV 건너편 T.053)656-0075
NAVER 네오미피부과 검색

밝은귀보청기
세계 1-5위 보청기
김은연(세실리아) 최준우(미카엘)
053)421-8588 (섬유회관 맞은편)
NAVER 밝은귀보청기 검색

정실장
낚아나고 꽁장어 낙지
대구공고네거리 대구은행 버스정류장옆
40인 단체방 어린이놀이방 완비
T.053)941-7008 정창훈(안드레아)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H. 016-518-2223
010-8345-9479
위령회장 이주석 요셉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U&I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 경 임 (아 네 스)

HANTOUR 한투어
(주)한투어 성지순례전문
멕시코(과달루페 성모성지), 쿠바
2018년 1월 26일 ~ 2월 7일
인원 24명 선착순 모객중
☎ 053-427-7090
안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http://www.hantourcatholic.com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 · 대장내시경 · 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 · 고혈압
소화기 · 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9월 3일(일)은
(故) 장태식(리노) 신부
선종 5주기 입니다.

행사 | 모임

9월 한티 피정
우리시대의 웰빙과 힐링: 9.9(토)~10(일)
달빛순례: 9.16(토) 17:00~21:30
쉬는하루(산책기도): 9.18(월) 10:00~16:00
문의: 한티피정의집, (054)975-5151

개인 피정(각 선착순 10명)
산내 치유 피정: 9.19(화)~20(수)
시니어 피정: 9.26(화)~27(수)
장소: 효령하늘집
지도: 정기모(요한보스코) 신부
문의: (054)382-0091

2018 자율형사립고 대건고 입학설명회
인성 등업, 학력 등업, 대건 등업
1차: 9.9(토) 14:00, 2차: 10.21(토) 14:00
장소: 대건고 안드레아관
문의: 입학홍보실, 235-4560

대구CPBC 개국 21주년 기념음악회
일시: 9.9(토) 17:00
장소: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출연: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지휘.김민), Vn.김응수 / 예매: 티켓링크(3만원 / 2만원)
전화예매·문의: 대구CPBC, 251-2631

교육 | 모집

발달장애인 주일학교 개학
일자: 9.9(토), 성토마스성당
대상: 유아, 초·중·고, 성인
문의: 476-6124 / (010)2802-5919

22회 글로벌 영어연수 참가자 모집
출발: 9.16(토) 8주 이상 선택
국가: 필리핀, 캐나다
대상: 성인 및 대학생
특징: 학비지원사업(학비의 20%)
문의: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593-1273

제26기 대가대 차이나포럼 원우 모집
개강: 9.18(월) 19:00(현재 접수중)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석식,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수업료: 10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무시험 취득교육
주말반: 금 18:30~22:20
토, 일 13:30~21:50
대상: 19세 이상, 남녀 제한 없이 누구나
문의: 대가대장례교육원, 555-4404

가톨릭신문사 성지 순례
일자: 10.6(금), 동부 유럽
경비: 395만원(11박 12일)
일자: 10.9(월), 성모님 발현지
경비: 395만원(11박 12일)
문의: (02)2281-9070 / www.cttour.org

프란치스카눔 성경공부 모집
개강: 저녁반 9.6(수) 19:30
오전반 9.7(목) 10:00
주제: 구약의 역설
강사: 강주현(요한) 수사 신부
문의: (010)8716-1182

54차 선교대학 개강(선교의 왕도_감동)
일시: 10.21(토) 10:30~16:30
장소: 계산문화관 / 지도: 이판석 신부
신청비 무료, 중식 제공
주관: (사)가두선교단, 781-6100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대구가르멜수녀원, (010)3375-4408

채용 | 안내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우리 교구와 교구 내 언론기관들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매일상조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427-44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7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발아플땐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지간신경종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칠곡 북놀이터
어린이전문서점
어린이 도서 전집류 판매
도서 및 교육상담
원장 조 은 미(세라피나)
칠곡 동아백화점 별관 옆 ☎ 053)321-2870
NAVER 북놀이터 서점 검색

치질수술 / 내시경(위·대장) / 건 강 검 진
딱! 좋은 병원
늘시원한위대항병원
병원장 의학박사 노성균(아우구스티노)
산격동 대우아파트 앞 959-7175

라인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 원장 원 종 훈 (바오로)
피부질환 아토피|알레르기|사마귀|티눈|건선|무좀
피부미용 여드름|흉터|기미|잡티|모공|보톡스|필러|비만
대명동 한영유니존빌딩 3층 (구.달성군청)
1호선 성당못역 3번출구 T.053) 651-8800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쁘게 섬기십시오. (에페 6,7)
말씀을 기억합니다.
품격순례 해외여행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 053-424-8525

아토피 · 예민피부 특화병원
www.dalsungskin.com
달성피부과·성형외과
아토피 체질치료/아토피 피부관리/레이저
민감성피부 성형수술/비만크리닉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2번출구

목조전원주택 분양/시공
21C HOUSING 21C주택산업
이정수 마티아 010-2624-0322
경산조폐공사 정문 앞

SM 수맥흙침대
창업 26주년 세일 행사!
공장직판, 거실소파
☎1588-5335